

잃어버린 '나' 찾아가는 마음 여행

'십우도 - 마침내 나를 얻다' 장순용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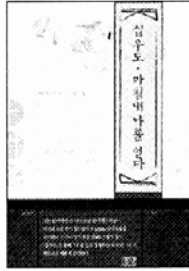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존재의 본질인 성품을 곧바로 가리켜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의 입장이다. 말로 세울 수 없는(不立文字), 말 길이 끊어진 자리(言語道斷)에 열리는 세계가 곧 선의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선은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몇 줄의 시구나 그림을 통해서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을 선호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십우도(十牛圖)다. 이 십우도의 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십우도 - 마침내 나를 얻다> (장순용 엮음, 들녘)가 우리말로 나왔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쓴 요코야마 고이치(일본 인교대학)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30년 전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자아를 찾는 수행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책의 주제인 십우도다. 지은이는 십우도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출발점이자 열쇠였다고 말한다. 그는 먼저 "왜 소는 도망친 것일까" "왜 소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일까" 등 그림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다음 나름대로의

동서양 철학 오기며 십우도 현대적 해석

해답을 찾는 마음 여행을 떠난다. 십우도는 본래 선승들에 의해 수행자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불교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서양의 실존철학과 기독교 사상 등 동서양의 철학사조를 넘나들고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져 온 십우도의 사상을 새



경험들을 따라 한 단계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지은이가 참된 자기를 잃고 있음을 자각하고 30여 년 동안의 수행을 십우도의 구성에 따라 정리한 이 책은, 선승들만의 수행서로 인식된 십우도를 누구나 알기 쉬운 대중적인 차원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현대에는 온갖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인구증가, 식량문제, 환경오염, 자연 파괴 등의 문제 그리고 인력사, 뇌사, 장기이식 문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라는 문제로 집약된다"며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십우도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십우도를 눈앞에 걸어놓고 자신의 소를 찾는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한다.

십우도는 선 수행의 단계를 소(牛)와 목동의 관계에 비유하여 열 가지 그림과 송(頌)으로 도상화한 것이다. 십우도는 크게 세 종류가 전해지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중국 북송시대 때 곡암 선사(牧牛圖)가 지은 것으로 십우(十牛 - 소를 찾아 나서다, 견적(見蹟 - 자취를 보다), 견우(見牛 - 소를 보다), 득우(得牛 - 소를 얻다) 등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선의 실천을 통해 선 수행자가 단계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심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십우도에서 소는 잃어버린 참된 자기를 비유한 것이고 목동은 그 참된 자기를 찾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이책의 한구절

■ "불교문화유산은 선인들의 믿음과 정성의 결정체다. 그러므로 그 조상배경과 함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족문화의 근간이 불교에 있고 또 이에 대한 가시적 접근이란 오로지 불교미술과의 만남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교미술을 통하여 선인들의 정신적 귀처를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것이다."

— 조각, 건축, 회화, 공예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을 종합적으로 다룬 입문서 <한국의 불교미술> (장충식 지음, 민족사, 값 7천원).

■ "불교의 이상세계를 선(善)과 미(美)로써 엄숙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장엄이라고 한다.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다양한 장식문양과 조형물 그리고 불전들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종교적 염원을 드러내는 가시적 표상이다."

불교세계 善·美로 그린게 장엄 다양성 없는 불교미술은 단명

—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그리고 여러 장식문양까지 그 의미와 상징성을 살핀 <사찰의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허균 지음, 들녘) 값 1만5천원.

■ "불교미술의 기본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모되어 갔다. 만약 불교미술에 이러한 다양성이 없었다면 굳어지고 썩어져 일찍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불교미술의 자극과 열망으로 모든 불교권에서는 그들의 미술이 세계적인 미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 1960년 이후 발표된 미술사 논문을 분석한 <한국미술사 방법론> (문명대 지음, 열화당) 값 1만4천원.

■ "불교미술에서는 철학과 신앙과 예술이 만나게 된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조형언어로 표현된 보편적 진리를 지향하여 왔으므로 불교의 철학과 신앙을 모르더라도 미술 작품을 통하여 종교적 숭고미와 예술적 조형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흐름을 정리한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강우방 지음, 대원사) 값 2만2천원.

41선사가 들려주는 깨침의 미학

'달마에서 성철까지' 박영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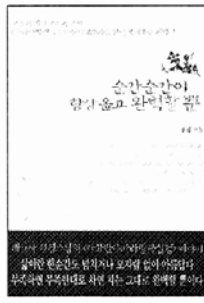


선승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경외의 대상이다. 한결같이 선승들은 경전에 집착하지 않는다. 설법보다는 실천을, 이상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선승들의 지위는 현대인들에게 각별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달마대사는 무려 9년 동안 송산의 토굴 속에서 정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음을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자신만의 표현과 행동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혜능 선사는 마음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 했다. <달마에서 성철까지> (박영규 지음, 들녘)는 중국 선사들 비롯해 우리나라의 범일 지눌 나옹 등 41명 선사들의 수행담과 그들이 남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헛된 꿈 깨고 욕심 버린 사람이 부처

정경 스님 지음

'순간순간이 항상...'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은 어디서 옵니까. 농부가 여름내 땀을 흘린 떡보리가기도 하지만, 그런 노고와 햇빛, 물, 공기, 바람 등이 땅기운과 어울려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인연이 어울려 이룬 것은 '색(色)'이라 하고, 그 이전의 것을 '공(空)'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나타난 음식들도 다시 인간의 몸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까닭이 됩니다."

신간 <순간 순간이 항상 옳고 완벽할 뿐> (하남)을 내놓은 정경 스님은 <반야심경>의 구절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토굴생활을 할 당시 찾아왔던 한 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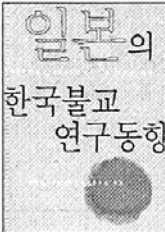
의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예로 설명한다. 이 책은 불교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는 <반야심경> 270자에 함축된 의미를 선 수행의 시각에서 살핀 사색문이라 할 수 있다.

지은이는 '여하시불(如何是佛)' 즉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화두에 대한 답을 <반야심경>에 비추어 보여준다. 또 그는 부처란 무지와 헛된 꿈을 깨고 욕심을 버린 자일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자기 무지를 걷어내고 최상의 지혜를 깨달아 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밖에 없는 수행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반야심경>을 토대로 하여 불법의 핵심사상을 여러 일화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동향'

유학생 연구회 엮음



일본인 눈으로 본 한국불교 100년

1500여 년 전, 백제의 성왕이 처음으로 일본에 불상, 경전, 스님을 보내 불교를 전한다. 이 때부터 일본은 나름대로의 일본 불교화의 체계를 정립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불교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한국불교 연구를 시작했다. <일본의 한국불교연구동향> (장경각)은 일본불교학자들에 의한 한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결

정체다. 이 책은 한국유학생 인도학불교학연구회에서 지난해 7월 발간한 <한국 불교학 세미나> 제8집에 실린 '일본에서 본 한국불교사상의 연구 성과와 전망'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부 이시이 슈도 교수의 '일본의 한국불교통사 연구'를 비롯해 일본의 한국학연구회 연구동향(조윤호·사토 아츠시) 등 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절대와 하나된 자유

박영호 지음 '...불교 금강경'

다석 유영모(1890-1981), 젊어서 기독교에 입문했던 그는 불교와 노장 그리고 공자와 맹자 사상 등 종교 철학사상을 두루 탐구했던 사상가다. 그의 제자 박영호(성천문화재단 다석사상 연구위원) 씨가 다석 사상 전집 4번째 권 <다석 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두레)을 내놓았다.

동서양의 종교와 고전을 폭넓게 연구했던 다석은 여러 종교의 교의와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로서 결국은 같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즉 상대세계를 벗어나 절대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이 법신을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

대세계와 하나가 되어 생사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를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석 사상의 핵심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경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기

순위	도서명	저·판자	출판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림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생황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4	라마나 마하트쉬 저작 전집	대 선	탑구사
5	절을 기차게 질하는 법	청 경	뫼다의 마을
6	금강경 강의	해 거	부다스텍닷컴
7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장경각
8	참회 기도법	일 타	효림
9	석가모니 슬기대화	해송봉	이규영 은하수
10	나는 누구인가	라나 마하트쉬	청 하

도서 안내: (02)737-0695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희소식!!!

중풍! 치매!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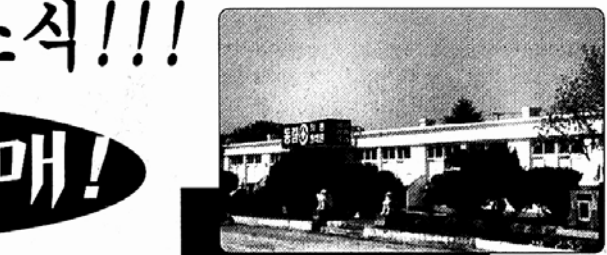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환자 치료



원인 지음 / 308쪽 / 값 8,000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한 수행자의 삶과 정신이 담긴 메아리!

산사의 메아리

산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자비가 있고 어디에도 걸림 없지만 깨끗함이 있으며 일부러 마을 내지 않지만 본연적인 지혜가 있다. 아, 자비와 청정과 지혜는 산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향기요 메아리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움직일 때 지혜가 있다. 모든 조화와 위선을 떠난 곳 천진하고 꾸밈없는 자연 속에 고요히 산사는 자리하고 있다.



원인스님은 경남 함안 해안사에 입산하여 해안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김천 수도선원 주지를 역임하고, 태백산에서 3년 결사를 성취하였다. 현재는 경북 영주 대승사에서 정진중이다. (연락처: 054-635-6331)

이 책의 판매수익금은 한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승사 시립을 건립 및 불사에 사용됩니다.

도서출판 장경각

• 본사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처인리 10번지, 해안사 해안사 서물사무소, 서울 -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태원빌딩 2층)
 • 전화 : (02) 744-1541 • 팩스 : (02) 744-1542 • 인터넷 : www.songchol.net • 하이텔 / SUTRA - 천리안 / sattva